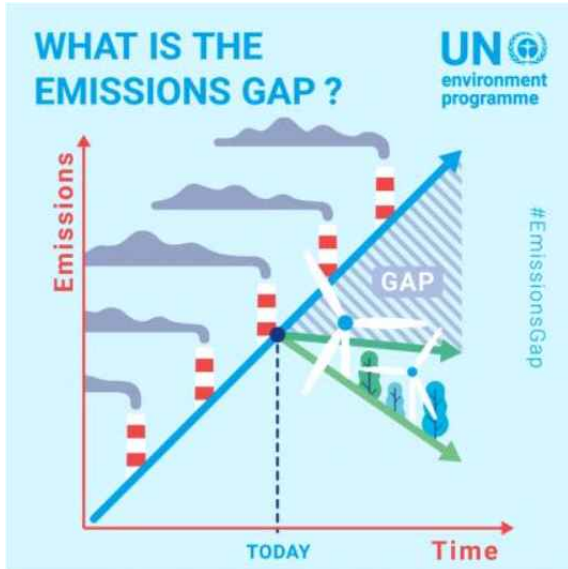


2020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 7% 하락할 듯,  
장기적으로 지구온난화를 0.01℃ 낮추는 정도 효과

## UN 환경계획(UNEP), “코로나19 상황 이후 녹색 회복” 촉구



2020.12.10.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유엔환경프로그램(UNEP)은 이번에 새로 내놓은 2020년 배출 갭 보고서에서 녹색의 팬데믹 회복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2030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고 세계가 파리기후 변화협정에서 정한 2℃ 목표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UNEP의 이번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이번 세기에 상승폭 3℃ 초과를 향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각 국 정부들이 전염병 회복의 일환으로 기후행동에 전력을 다 하고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릴 차기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강화된 공약을 통해 순 제로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굳건히 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2℃ 제한 목표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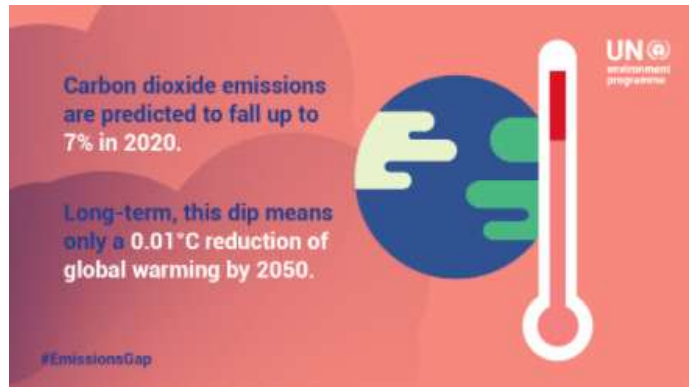
배출 갭 연례보고서는 금세기 지구온난화를 2℃ 미만으로 제한하되 1.5℃를 추구하겠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맞는 배출 수준과 한 해 총 예상 배출 수준 간의 차이에 대한 평가를 매년 내놓는다. 이러한 차이 즉 “우리가 실제 배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준과 지킬 필요가 있는 수준” 간의 차이를 배출 갭이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CO<sub>2</sub> 양(GtCO<sub>2</sub>e)으로 환산했을 때 새로운 최고치 인 59.1기가톤에 도달했다.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이후 평균 1.4%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산불이 크게 늘어 그 보다 빠른 2.6% 증가를 보였다.

*UNEP 사무총장 Inger Andersen의 말 (배출량 갭 관련 기자회견)*

“UNEP의 이번 배출 갭 보고서에서 보시다시피, 팬데믹 후 녹색 회복 정책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여줄 것이며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줄 것입니다. 저는 정부들이 코로나19 관련 재정투입 다음 단계에서 녹색 회복을 고려한 재정 정책을 채택해줄 것과 2021년에는 획기적으로 높아진 수준의 기후행동을 펼쳐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UNEP의 배출 갭 보고서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WMO의 온실가스 블레틴에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배출 결과인 현 CO<sub>2</sub> 농도가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약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폭은 탄소순환의 연변동과 식물과 같은 탄소흡수원의 자연 변동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CO<sub>2</sub> 농도 수준은 2019년에도 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전 지구 연간 평균농도가 유의 임계치인 410ppm을 넘어섰다. 1990년 이후 수명 긴 온실가스에 의한 총 복사강제력(기후에 미치는 온난화 효과)이 45% 증가했으며 CO<sub>2</sub>가 이의 4/5를 차지한다.

*WMO 사무총장 Petteri Taalas의 말 (배출량 갭 관련 기자회견)*

“WMO는 대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니터링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기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증가 추세는 해를 거듭하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CO<sub>2</sub>는 지금까지 온난화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온실가스이고, 수명이 매우 길기 때문에 기후완화에 있어 그것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가스인 메탄은 온난화의 1/6에 기여했으며 수명이 1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CO<sub>2</sub> 보다는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 클럽에 가입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번 배출량 갭 보고서는 파리 협정 5주년을 맞아 기후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0년 12월 12일 개최될 'Climate Ambition Summit' 회의 전야에 정식 공개된다.